

##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 영 준\*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권 혁 용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

### 《 요 약 》

---

---

본 연구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감정, 생각,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시각장애 학교 학생 25명과 영재중학교 학생 8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영재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척도(MAS) 질문지를 사용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된 자료는 대응표본  $t$ -검정과 공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감정, 생각, 행동 그리고 다차원적 행동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와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

주제어 : 통합, 교류교육, 다차원적 행동척도(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 MAS)

---

\* 제1저자(ezra-pyj@hanmail.net)

\*\* 교신저자(gyunlee@daegu.ac.k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미국의 시민권 운동이 일어났던 1960년대에 차별과 분리가 이슈가 됨으로써 많은 문화권과 국가와 교육체제는 유네스코에서 지지한 살라만카(Salamanca)성명서와 같이 통합의 방향으로 운동이 시작되어 왔다. 그러나 각 정부들과 교육체제들은 통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반응해 왔다. 이탈리아나 미국의 버몬트 주와 같은 몇몇의 국가와 주정부에서는 더 이상 특수교육기관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분리제도의 차별적 유물로서 거부되었다(Hallahan & Kauffman, 2005).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모든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일반학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대부분의 교육관할구에서는 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였다(Foreman,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특수교육의 시점을 로제터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선교사에 의한 맹교육으로 본다면 한국 특수교육의 출발은 평양 정진소학교에 맹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연구들(김병하, 1994; 김천년, 1993)로 볼 때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출발 자체가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중등학교로 갈수록 통합교육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Cole & Mc Leskey, 1997). 왜냐하면 중등학교는 교육과정 중심이어서 교육과정이 탄력성이 부족하며 모든 교육의 결과가 시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Mc leskey & Waldron, 2002). 특히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학력신장을 교육의 중점과제로 삼고 있기에 일반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에 더욱 어려운 현실에 처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들에서는 초기의 통합교육 경험이 장애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과 학습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김미아, 2010; 김천년, 1993)가 보고된 바도 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및 단순 지체아동들과 같은 감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현재와 같은 물리적 통합의 단계에 배치되기만 한다면 물리적 통합은 이루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학습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에는 더욱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시각장애 중등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게 될 경우 현재의 교육체제에서는 점자교육, 보행교육과 같은 전문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주된 직업교육인 이료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다시 맹학교 고등부로 재입학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통합교육이라는 특수교육의 주된 흐름에서 감각장애 학생들이 배제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학생들과 어떤 형태로든 어울리기를 원하고 시각장애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 더욱 익숙한 맹학교에서 통합 교류교육이 프로그램화 되어 운영 된다면 정안 아동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통합 교류교육의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사료된다. 정안 학생들을 시각장애 학교로 불러 들여 교류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정안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과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교수·학습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교류교육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 영어 영재 K중학교와 부산 B맹학교 간의 교류교육을 통하여 부산 B맹학교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체육활동, 점자교육 실습, 보행실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재 K중학교에서는 워드입력봉사 및 영어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여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의 교류교육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통합교육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정연, 2002; 김종삼, 2000; 심명용, 2007; 오유석, 2001)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는 통합교육의 성공요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김병하, 2003),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사상과 불교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족이 통합교육의 오랜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에 사료된다. 그리고 통합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교류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민경환, 2002; 서덕교, 2006; 정정진, 1999)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주로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통합교육의 실천적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학교시설,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교수활동적 통합 등을 볼 때 현행의 통합교육 환경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을 일반학교로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 배치의 통합일 뿐 현재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통합교육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역통합교육에 관한 현장적 실천과 연구들(김미경, 2001; 박주옥, 2002; 이영숙, 2004; 한은주, 2008)이 극소수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연구 역시 모두 발달장애 아동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들이며, ‘역통합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통합교육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또 다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위의 역통합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므로 유아교육이나 초등학교는 중등학교보다 통합에 대해 더 수용적이기에(Perce & Forlin, 2005) 중등학교 교육에서의 역통합교육에도 그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아닌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의 분리된 교육환경에서 정안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 교류교육을 실시하여 본 프로그램이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진정한 통합교육의 실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 용어 정의

### 1) 교류교육

본 연구에서의 교류교육은 영재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시각장애 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들이 일반교사와 특수학교교사의 협력에 의해 정기적으로 월 2회 교류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2) 다차원적 행동척도(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 MAS)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다차원적(감정·생각·행동 차원)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Findler, Vilchinsky, & Werner(2007)가 개발한 것으로 감정, 생각, 행동 차원을 포함하는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척도(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 MAS)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의 MAS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부분 수정한 강석주(2007)의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부산 B맹학교 초·중·고 학생 25명과 부산 K영재중학교 학생 83명이 시각장애 학교에서 교류교육에 참여하였다. 영재중학생의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영재중학생의 특성

구분	성별		가족유무		접촉경험		봉사경험		교육경험	
	남자	여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인원	36	47	10	73	74	9	60	23	73	10
%	43	57	12	88	89	11	72	28	88	12
전체	83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Findler, Vilchinsky, & Werner(2007)가 개발한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척도(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 MAS)를 변안하여 우리의 정서를 반영하여 수정한 강석주(2007)의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MAS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심리적 측정에 제한되어 일반적 수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감정, 생각, 행동 차원을 포함하는 척도 즉, 태도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구성의 이론적 체계를 수용하였다. 이 세부분(감정·인지·행동 차원)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반영하면서 그와 동시에 분리되고 구별되는 실체를 나타냄으로써 적절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만약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 생각,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강석주, 2007).

MAS의 내용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정척도는 16개 문항으로 긴장, 스트레스, 불안감 등의 불만족스러운 활동과 침착함, 조용함 같은 만족스러운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척도는 10개 문항으로 ‘우리는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무난한 사람으로 보인다’, ‘나는 그를 더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적도는 8개 문항으로 회피성과 접근성의 행위를 언급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회피성 항목은 ‘자리를 피할 것이다’와 같은 행동적 반응뿐만 아니라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으로 통화할 것이다’와 같은 더 민감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강석주(2007)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질문이라 여겨지는 감적 척도의 1문항(게으름)과 행동적도의 1문항(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을 제외한 감정 15문항, 생각 10문항, 행동 7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된 설문항목들에 대한 응답자들 점수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각 요인에 대한 대상자들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대반향(-)으로 표현된 긍정적인 항목들은 분석을 위해 역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MAS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원저자의 연구에서는 감정의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생각의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행동의 Cronbach's  $\alpha = .83$ 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강석주(2007)의 연구에서는 감정의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생각의 Cronbach's  $\alpha = .81$ 이었으며, 행동의 Cronbach's  $\alpha = .82$ 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MAS의 감정, 생각, 행동 세 가지 차원에 따른 신뢰도는 감정의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생각의 Cronbach's  $\alpha = .78$ 이었으며, 행동의 Cronbach's  $\alpha = .83$ 으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프로그램은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 3, 5주 토요일 오후 13:00 ~ 15:00까지 총 12회기로 운영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한 차시 지도안은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프로그램 내용

회기	시기	프로그램 내용
1	6/19	교류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어학습멘토링
2	7/03	부산맹학교 홍보동영상 시청 및 학교교육활동 소개, 영어학습멘토링
3	7/17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교육, 영어학습멘토링
4	9/18	시각장애인 안내보행 체험활동, 영어학습멘토링
5	10/02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 관련 홍보동영상 시청 및 감상소감 나눔1, 영어학습멘토링

6	10/16	시각장애인체험활동(흰지팡이보행), 영어학습멘토링
7	10/23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 관련 홍보동영상 시청 및 감상소감 나눔2, 영어학습멘토링
8	10/30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 관련 홍보동영상 시청 및 감상소감 나눔3, 영어학습멘토링
9	11/06	시각장애인체육체험활동(골볼 및 맹인탁구), 영어학습멘토링
10	11/20	점자 익히기 체험활동 및 교육, 영어학습멘토링
11	11/27	통합현장체험학습
12	12/04	영어멘토링프로그램 정리 및 소감나누기 활동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1부에서는 장애인 이해교육, 창의인성교육, 시각장애 스포츠 활동 체험, 점자쓰기 체험 등의 시각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부에는 영어 학습의 멘토(영재중학교학생)와 멘티(시각장애 학생)가 만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영어회화를 학습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전검사는 2010년 4월 30일에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2010년 12월 7일에 실시하였다.

<표 3> 시각장애인 체육체험활동(골볼) 지도안

일시	2011. 11월 06일 13:00~14:00	장소	체육관	지도교사	박영준
단원	시각장애인 스포츠 경기-골볼	차시	12/9(본시)	수업형태	모둠학습
본시 주제	시각장애인의 주된 체육활동인 골볼경기를 통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간의 통합교육을 실천한다.				
학습 목표	A. (정안학생) 정안학생들은 시각장애인의 스포츠경기인 골볼을 배우고 경기에 참여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체육활동을 체험한다. B. (시각장애학생) 시각장애학생들은 골볼경기를 통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감각운동, 지각운동을 향상시킨다. C. (공동목표) 스포츠경기를 통하여 시각장애인과 정안학생이 함께 어울리 수 있는 스포츠경기를 통하여 통합교육을 실천하며 서로간의 라포를 형성한다.				

<표 3> 시각장애인 체육체험활동(골볼) 지도안 (계속)

단계	학습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 모둠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안학생과 맹학생이 한 모둠이 되도록 모둠을 구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의 지시에 따른다.</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볼공 1개, 안대 10개</li> <li>한 경기는 5분으로 제한하며 5분중 초기 1분은 안대를 가리지 않고 골볼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li> </ul>
	○ 몸풀기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활동에 있어 간단히 몸을 풀도록 지시한다.</li> <li>경기방법 및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트레칭을 한다.</li> <li>경청한다.</li> </ul>		
	○ 경기규칙 설명				
전개	○ 시범보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볼경기에 능숙한 맹학생 10명을 선발하여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모둠별로 골볼경기에 익숙한 맹학생 1명씩 나와 시범경기를 보여 준다.</li> <li>골볼경기에 참여한다.</li> </ul>	30	
	○ 골볼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모둠과 6모둠을 지명하여 두 팀이 경기하도록 지시한다. 2모둠과 7모둠을 지명하여 두팀이 경기하도록 지명한다. (중략)</li> </ul>			
정리	○ 몸풀기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활동에 있어 간단히 몸을 풀도록 지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트레칭을 한다.</li> </ul>	10분	
	○ 경험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안학생과 맹학생이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한 경험에 대해 나누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험에 대하여 발표한다.</li> </ul>		
	○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중학생과 B맹학교 학생들과 1:1결연이 되어 영어 멘토링교육을 준비하도록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짝을 찾아 교실로 이동한다.</li> </ul>		

#### 4. 자료 처리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모든 양적인 자료는 SPSS statistic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별로 사전·사후검사의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별로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

##### 1) 대한 감정의 변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전후(前後)의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

변인		구분	N	M	SD	<i>t</i>
성 별	남자	사전	36	2.01	.56	2.33*
		사후	36	1.80	.50	
	여자	사전	47	2.25	.55	4.38***
		사후	47	1.80	.47	
장애인 가족유무	있다	사전	10	2.02	.60	1.57
		사후	10	1.75	.54	
	없다	사전	73	2.16	.56	4.60***
		사후	73	1.81	.47	
장애인 접촉경험	있다	사전	74	2.17	.58	4.94***
		사후	74	1.79	.48	
	없다	사전	9	1.94	.41	.41
		사후	9	1.89	.51	
장애인 봉사경험	있다	사전	60	2.21	.59	5.83***
		사후	60	1.71	.44	
	없다	사전	23	1.99	.46	-.60
		사후	23	2.04	.55	
장애인 교육경험	있다	사전	73	2.18	.55	5.28***
		사후	73	1.78	.46	
	없다	사전	10	1.86	.64	-.58
		사후	10	1.94	.60	
전체		사전	83	2.15	.56	4.88***
		사후	83	1.80	.48	

\*\*\*p<.001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중학생의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전후의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알아 본 결과, 전체 사후평균 1.80점으로 사전평균 2.15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사후평균이 1.80점으로 사전평균 2.01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은 사후평균 1.80점으로 사전평균 2.25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무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75점으로 사전평균 2.02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1.81점으로 사전평균 2.16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경험에서는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79점으로 사전평균 2.17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1.89점으로 사전평균 1.94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경험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71점으로 사전평균 2.21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04점으로 사전평균 1.99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78점으로 사전평균 2.18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1.94점으로 사전평균 1.86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 성별변인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두에서,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없는 경우,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전후(前後)의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

변인		구분	N	M	SD	<i>t</i>
성별	남자	사전	36	2.58	.56	1.59
		사후	36	2.39	.71	
	여자	사전	47	2.58	.48	3.23**
		사후	47	2.23	.54	
장애인 가족유무	있다	사전	10	2.44	.59	.91
		사후	10	2.14	.86	
	없다	사전	73	2.60	.50	3.45**
		사후	73	2.32	.59	
장애인 접촉경험	있다	사전	74	2.55	.53	3.86***
		사후	74	2.24	.58	
	없다	사전	9	2.77	.28	-.16
		사후	9	2.82	.73	
장애인 봉사경험	있다	사전	60	2.59	.54	3.97***
		사후	60	2.19	.66	
	없다	사전	23	2.56	.43	-.31
		사후	23	2.59	.42	
장애인 교육경험	있다	사전	73	2.57	.52	3.64**
		사후	73	2.25	.63	
	없다	사전	10	2.66	.49	.00
		사후	10	2.66	.49	
전체		사전	83	2.58	.51	3.50**
		사후	83	2.30	.62	

\*\*p<.01, \*\*\*p<.001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중학생의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전후(前後)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 본 결과, 전체 사후평균 2.30점으로 사전평균 2.58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사후평균이 2.39점으로 사전평균 2.58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은 사후평균 2.23점으로 사전평균 2.58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무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2.14점으로 사전평균 2.44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32점으로 사전평균 2.60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경험에서는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2.24점으로 사전평균 2.55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82점으로 사전평균 2.77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경험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2.19점으로 사전평균 2.59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59점으로 사전평균 2.56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2.25점으로 사전평균 2.57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66점으로 사전평균 2.66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 여학생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없는 경우,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전후(前後)의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

변인		구분	N	M	SD	t
성별	남자	사전	36	2.15	.59	1.98
		사후	36	1.95	.60	
	여자	사전	47	2.18	.65	2.65*
		사후	47	1.87	.54	
장애인 가족유무	있다	사전	10	2.02	.69	1.49
		사후	10	1.70	.58	
	없다	사전	73	2.19	.61	2.97**
		사후	73	1.93	.56	
장애인 접촉경험	있다	사전	74	2.18	.65	3.43**
		사후	74	1.89	.57	
	없다	사전	9	2.03	.35	-.11
		사후	9	2.04	.48	
장애인 봉사경험	있다	사전	60	2.18	.65	4.16***
		사후	60	1.78	.54	
	없다	사전	23	2.14	.55	-.86
		사후	23	2.23	.51	
장애인 교육경험	있다	사전	73	2.18	.62	3.76***
		사후	73	1.87	.56	
	없다	사전	10	2.04	.68	-.95
		사후	10	2.20	.53	
전체		사전	83	2.17	.62	3.32**
		사후	83	1.91	.56	

\*p<.05, \*\*p<.01, \*\*\*p<.001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중학생의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전 후(前後)의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알아 본 결과, 전체 사후평균 1.91점으로 사전평균 2.17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사후평균이 1.95점으로 사전평균 2.15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은 사후평균 1.87점으로 사전평균 2.18

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무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70점으로 사전평균 2.02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1.93점으로 사전평균 2.19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경험에서는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89점으로 사전평균 2.18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04점으로 사전평균 2.03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경험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78점으로 사전평균 2.18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23점으로 사전평균 2.14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87점으로 사전평균 2.18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20점으로 사전평균 2.04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 여학생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없는 경우,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전체의 변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전후(前後)의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전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전체의 변화

변인		구분	N	M	SD	t
성별	남자	사전	36	2.22	.49	2.40*
		사후	36	2.02	.52	
	여자	사전	47	2.34	.48	3.93***
		사후	47	1.95	.42	
장애인 가족유무	있다	사전	10	2.15	.56	1.38
		사후	10	1.86	.53	
	없다	사전	73	2.30	.48	4.34***
		사후	73	2.00	.45	
장애인 접촉경험	있다	사전	74	2.29	.51	5.34***
		사후	74	1.95	.46	
	없다	사전	9	2.22	.29	.02
		사후	9	2.21	.44	
장애인 봉사경험	있다	사전	60	2.32	.52	4.93***
		사후	60	1.88	.45	
	없다	사전	23	2.20	.39	-.85
		사후	23	2.25	.37	
장애인 교육경험	있다	사전	73	2.30	.48	4.91***
		사후	73	1.95	.45	
	없다	사전	10	2.15	.53	-.65
		사후	10	2.22	.48	
전체		사전	83	2.29	.49	4.57***
		사후	83	1.98	.46	

\*\*\*p<.001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중학생의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 전후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전체의 변화를 알아 본 결과, 전체 사후평균 1.98점으로 사전평균 2.29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사후평균이 2.02점으로 사전평균 2.22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은 사후평균 1.95점으로 사전

평균 2.34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무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86점으로 사전평균 2.15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00점으로 사전평균 2.30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경험에서는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95점으로 사전평균 2.29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21점으로 사전평균 2.22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경험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88점으로 사전평균 2.32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25점으로 사전평균 2.20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후평균이 1.95점으로 사전평균 2.30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사후평균 2.22점으로 사전평균 2.15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 성별변인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두에서,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이 없는 경우,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

요인	구분	N	M	SD	SS	df	MS	F
성별	남자	36	1.80	.50	5.77E-02	1	5.77E-02	.26
	여자	47	1.80	.47				
장애인 가족유무	있다	10	1.75	.54	7.39E-03	1	7.39E-03	.03
	없다	73	1.81	.47				
장애인 접촉경험	있다	74	1.79	.48	.19	1	.19	.87
	없다	9	1.89	.51				
장애인 봉사경험	있다	60	1.71	.44	2.38	1	2.38	12.44**
	없다	23	2.04	.50				
장애인 교육경험	있다	73	1.78	.46	.45	1	.45	2.11
	없다	10	1.94	.60				
전체		83	1.80	.48				

\*\*p<.01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공분산 분석한 결과,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 성별, 가족유무, 접촉경험, 교육경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봉사경험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2)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

변인	구분	N	M	SD	SS	df	MS	F
성별	남자	36	2.39	.71	.52	1	.52	1.38
	여자	47	2.23	.54				
장애인 가족유무	있다	10	2.14	.86	.18	1	.18	.49
	없다	73	2.32	.59				
장애인 접촉경험	있다	74	2.24	.58	2.27	1	2.27	6.35*
	없다	9	2.82	.73				
장애인 봉사경험	있다	60	2.19	.66	2.73	1	2.73	7.77**
	없다	23	2.59	.42				
장애인 교육경험	있다	73	2.25	.63	1.29	1	1.29	3.50
	없다	10	2.66	.49				
전체		83	2.30	.62				

\*p<.05, \*\*p<.01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공분산 분석한 결과,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 성별, 가족유무, 교육경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촉경험은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경험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유무와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 3)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공분산 분석한 결과,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 성별, 가족유무, 접촉

경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봉사경험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경험은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와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10>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

변인	구분	N	M	SD	SS	df	MS	F
성별	남자	36	1.95	.60	.15	1	.15	.50
	여자	47	1.87	.54				
장애인 가족유무	있다	10	1.70	.58	.34	1	.34	1.14
	없다	73	1.93	.56				
장애인 접촉경험	있다	74	1.89	.57	.30	1	.30	1.01
	없다	9	2.04	.48				
장애인 봉사경험	있다	60	1.78	.54	3.53	1	3.53	13.50***
	없다	23	2.23	.51				
장애인 교육경험	있다	73	1.87	.56	1.19	1	1.19	4.09*
	없다	10	2.20	.53				
전체		83	1.91	.56				

\*p<.05, \*\*\*p<.001

4)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전체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전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전체의 변화

변인	구분	N	M	SD	SS	df	MS	F
성별	남자	36	2.02	.52	.16	1	.16	.76
	여자	47	1.95	.42				
장애인 가족유무	있다	10	1.86	.53	.11	1	.11	.51
	없다	73	2.00	.45				
장애인 접촉경험	있다	74	1.95	.46	.61	1	.61	2.97
	없다	9	2.21	.44				
장애인 봉사경험	있다	60	1.88	.45	2.65	1	2.65	14.61***
	없다	23	2.25	.37				
장애인 교육경험	있다	73	1.95	.45	.79	1	.79	3.86
	없다	10	2.22	.48				
전체		83	1.98	.46				

\*\*\*p&lt;.001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를 공분산 분석한 결과,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 성별, 가족 유무, 접촉경험, 교육경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봉사경험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 IV. 논 의

### 1.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

첫째,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통합교육이 일반아동의 사회 및 정서발

달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최해옥(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을 실시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전 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한 김정연(2002)과 이은주(1995)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정안학생의 시각장애학생과 교우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교류교육을 실시한 집단이 높다고 보고한 서덕교(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넷째,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전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정안학생의 시각장애학생과 교우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교류교육을 실시한 집단이 높다고 보고한 서덕교(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 결과는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태도가 장애아동과 접촉 경험이 없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한 꼭지영(1994)과 이은주(1995)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시각장애 학생과 정안 중학생 간의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유은선(201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장애 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가 타 장애 유형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기에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공분산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둘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공분산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유무와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셋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공분산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와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김숙경(2007)와 손정화(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를 공분산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

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진숙(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자원봉사활동, 장애 체험 등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감정, 생각, 행동 그리고 다차원적 행동 전체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영재중학생의 배경요인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와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2. 제 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지역 시각장애 학교 학생과 영재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있어 영재중학생의 특성에 따른 집단의 구성 인원의 부족과 불균형으로 인한 통계적 자료 처리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을 통한 정안 영재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행동 변화만을 알아보았기에 시각장애 학생들의 정서발달 변화, 행동 및 특성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각장애 학교에서의 교류교육이 정안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 두 집단 모두에게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석주 (2009).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 기독교대학교 대학원.
- 김미경 (2001). 역통합에서 소그룹놀이활동이 장애유아의 사회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아 (2010).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학교 초등부모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숙경 (2007).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정연 (2002). 장애 아동 통합에 대한 일반 초등학생의 태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연 (2002). 정신지체장애 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초등학생의 태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덕교 (2006). 정안학생의 교류교육 경험이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종삼 (2000). 통합교육 경험, 학년, 성별에 따른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경환 (2002). 장애유아의 교류교육이 일반유아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주옥 (2002). 특수학교 내 유치원 과정 역통합교육 활동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서덕교 (2006). 정안학생의 교류교육 경험이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손정화 (2003).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장애인 태도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 심명용 (2007). 통합교육 경험시기에 따른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유석 (2001). 통합교육 경험이 초등학생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유은선 (20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교사의 장애 유아통합교육의 당위성 인식, 교육적 효과 인식 및 장애유형별 태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영숙 (2004). 역통합교육체험이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인식과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주 (1995). 정신지체 또래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 태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진숙 (2002). 장애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정정진 (1999). 장애영유아 교류교육의 효과.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7(1), 95-125.

- 정대영 (2009).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입문**. 통합교육: 학지사.
- 최해욱 (2006)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한은주 (2008). 특수학교 유치부 역통합교육에 대한 일반 유아 가족과 교사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Ainscow, M. (2005). Looking to the future: Towards a common sense of purpose. *Australasi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9(2), 182-186.
- Cole, C. M., & McLeskey, J. (1997). Secondary inclusion programs for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29(6), 1-15.
- Dieker, L., & Murawski, W. W. (2003). Co-teaching at the secondary level: Unique issue, current trends, and suggestions for success. *The High School Journal*, 86(4), 1-13.
- DiMartino, J., Clarke, J., & Lachat, M. A. (2002). Creating student-centered high schools. *Principal Leadership*, 2(5), 44-50.
- Findler, L., Vilchinsky, N., & Werner, S. (2007). The 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MAS): Construction and Valid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Spring*, Academic Research Library.
- Foreman, P. (2001). *Integration and Inclusion in Action*. Sydney: Harcourt Australia.
- Forlin, C. (2007). Classroom diversity: Towards a whole school approach. in S. N. Phillipson (ed.), *Learning Diversity in the chinese Classroom: Contexts and Practice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95-123.
- Hallahan, D. P., & Kauffman, J. M. (2005). *Exceptional Learners: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10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Kauffman, J. M., & Hallahan, D. P. (2005). *Special education: What Is it and Why We Need it*. Boston, MA: Pearson.
- McLeskey, J., & Waldron, N. L. (2002). Inclusion and school change: Teacher perceptions regarding curricular and instructional adaptations.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25(1), 41-54.
- Pearce, M. V., & Forlin, C. (2005). Challenges and potential solutions for enabling inclusion in secondary schools. *Australasi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9(2), 93-106.
- Sharma, U., Forlin, C., Loreman, T., & Earle, C. (2006).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concerns and sentiments about inclusive educ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novice pre-service teacher.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1(2), 80-93.
- Skrtic, T. M. (1995). The special education knowledge tradition: Crisis and opportunity. in E. I. Meyen and T. M. Skrtic(eds), *Special Education and Student Disability: An Introduction (4th ed)*, Denver, CO: Love.
- The Salamanca Statement and Framework for Action on Special Needs Education, salamanca, Spain.



The effects of the inclusive intervisiting program on the  
gifted secondary school students' multidimensional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Park, Young Jun**

Daegu University

**Kwon, Hyeok Yong**

Daegu University

**Lee, Hae Gyu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inclusive intervisiting program between students attending school for the blind and the gifted secondary school students on sighted gifted secondary students' multidimensional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behavioral changes, whose concrete purpose was to investigate the gifted students' emotional, thinking and behavioral changes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articipants included 25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in school for the blind and 83 gifted secondary students with no visual impairment. Pre and post test were administered to gifted students with MAS questionnaire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Paired Samples *t*-test and Covariance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the inclusive intervisiting program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gifted secondary students' emotion, thinking, behavior and overall multidimensional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As for gifted students' background factors, their experiences for volunteering work and education for understan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main factors affecting the gifted students' changes in multidimensional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Inclusive, Intervisiting Program, 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MAS)

논문 접수: 2011. 08. 03 심사 시작: 2011. 08. 10 게재 확정: 2011. 09. 26

<부록> 영재중학생의 사례일지

각 프로그램의 회기가 운영됨에 따라 영재중학생들의 사례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양적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질적인 내용을 가미시켰다. 그 대표적인 영재중학생 김○정의 사례일지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6월 19일

<중략>.... 우리는 어색하게 각자 이름표가 있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조금 후에 맹학교 학생들이 들어왔다. 내 오른쪽에 앉은 나의 짝지의 이름은 '정○문' 이었다. 어색하게 첫 인사를 나누고 출석을 부를 때 이 친구는 소리를 지르더라고 음, 굉장히 활발한 아이구나 싶었다. 대답도 정말 씩씩하게 하더군, 잠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지켜야 할 예절 같은 것을 들었다. 뭐 걸을 때 내 팔을 잡게 한다는 것과 무엇을 줄 때는 손에 직접 쥐야한다는 것 등, 그런 설명을 들은 나는 앞에 있던 과자를 까서 줬다. 학교 안에 복도에서 '정○문' 이 자기가 쓴 시를 보여주던데 초등학교 때 쓴 거라고 한다. 나한테는 신기했던 것이 그 시는 글자로 적혀 있으며 그 위로는 점자가 붙어 있었다. 나도 눈을 감고 점자를 만져봤지만 역시 난 둔한지 거기서 거기로 밖에 안 느껴지더라,,, <후략>

2. 9월 18일

<중략>....예전에 B학교 봉사하기 전에 우리 학교 원어민 수업시간에 '의식' 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직접 경험하는 주관적 심적 현상의 총체라면 ... 이런 의문이 생긴다. 내가 느끼는 감각이랑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 같은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읽을 때는 그 모양을 보고 하지만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바라볼 때, 내가 보는 피아노 갈색과 다른 사람이 보는 갈색은 과연 같은 것일까? 그런데 이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는데 '빨간색'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색깔이 떠오를까? 오늘 친구랑 대화하다가 어떤 친구가 귀머거리인 척을 했다. 그러면서 말을 안 하던데 내가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귀머거리는 자신의 말을 못 듣기 때문에 입 모양을 따라 해도 이상한 소리 밖에 못 낸다고 한다. 그러면 내 나뉠대로의 결론도... 그럼 안 보이면 색도 안 느껴지는 것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색깔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무래도 무리인 듯싶다. 빨간색의 사전적 의미는 ‘그림물감의 색 이름’ 즉 빨간색의 본질인 색은 그 색 자체 말고는 표현이 어려운 것 같다.

### 3. 11월 6일

<중략>...먼저 골볼을 했는데 시각장애학교 대 영재중학교이었다 보나마나 영재중이 유리해서 뒤에서 들어보니 불만이 좀 있었다. 그러더니 쌤들은 안대를 가지고 오시더라, 이제야 좀 게임이 되겠군 했는데 정말 웃겼다. 이○환 바닥만 더듬고 있고, 결과는 보나마나 B학교가 이겼다. (내 기억상) 그리고 나서 영재중 끼리 안대를 쓰고 했는데 이거야 말로 정말 웃겼다. 정○호가 그렇게 웃긴 줄 몰랐네 그리고 나서는 탁구를 하러 갔다. 탁구는 아무리 소리 나는 공이라도 빨라서 어려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굴리는 것이더라. 나도 탁구는 못하지만 그건 재미있어 보였다. 역시나 웃긴 건 이○환이었다. 안대를 쓰고 완전 소외되었다. 우리 여자애들끼리도 한 판 했는데 거 참 웃기더라, 다 하고 나서 다시 시청각실에 갔는데 햄버거도 주고 점자 기념품도 주더라.

